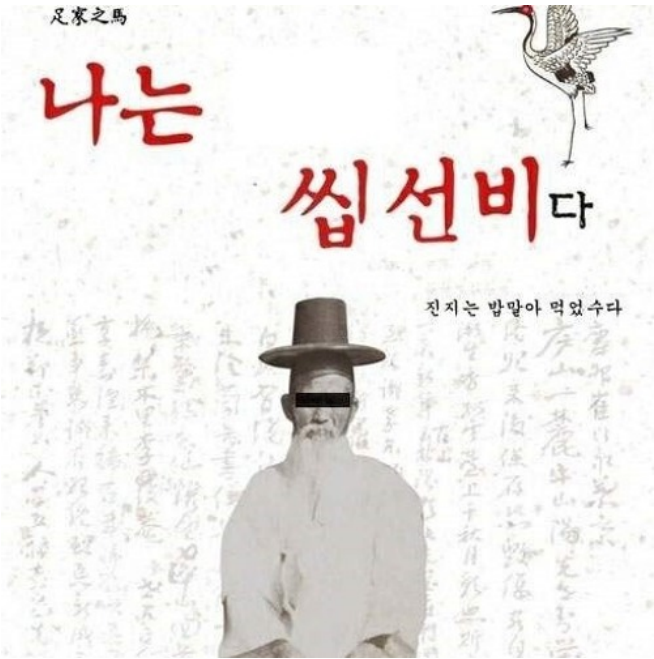


욕설 분석

Created time: February 12, 2024 8:20 PM

사용 vscode extension: Markdown PDF



목차

- 욕설 분석
 - 욕설의 맥락·비교·기능
 - 욕설에서 보는 패미니즘, 유교, 불교
 - 욕설의 전세계적 공통점
 - 욕설의 기능
 - 욕설 분류와 의미
 - 남녀의 생식기(genitals)와 성교(intercourse)관련
 - 이기심과 배척 관련
 - 최악의 욕설 (금기의 위계)
 - 욕 같지만 욕이 아닐 수도 있는 속어
 - 조선시대 씹선비들
 - 오성과 한음의 생식기 관련 용어에 대한 질문
 - 김삿갓의 시 -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
 - 신윤복, 김홍도
 - 거세되지 않은 내시
 - 조선시대 성인용품
 - 장녹수와 10대왕 연산군 (이융. 재위 12년. 18-30세)
 - 사방지
 - 어우동
 - 황진이
 - 선조: 정력왕 암군
 - 영조: 51세의 나이차 극복
 - 숙종과 장희빈(장옥정), 숙빈 최씨(동이·무수리 출신)
 - 부록: '윤리적 잡년'에서 배우는 19금 영단어

참고자료

- 욕설/한국어 (나무위키),
- 한국의 욕에 관한 연구 ([꿈돌이 77 블로그](#))
- <에로틱 조선>
- <고금소총古今笑叢>
-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
- <윤리적 잡년> 재닛 하디, 도씨 이스턴 (2020)

욕설의 맥락·비교·기능

욕설에서 보는 패미니즘, 유교, 불교

조선 시대의 지배 이념은 유교였다. 유교의 핵심 고전 가운데 하나인 『주역』은 음양이라는 단순한 구조에서 출발한다. 세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대상을 둘로 나누어 보고(음양 이원론), 그 둘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살펴보라는 것이다(음양 조화론). 그보다 앞선 고려 시대의 중심 사상은 불교였다. 불교 또한 놀라울 만큼 간결하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처럼, 하늘이든 땅이든 모두 같은 자연이고, 현실과 비현실 역시 인간이 확실히 알 수 없는 세계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왕과 신하, 남자와 여자 역시 근본적으로는 “같은 인간”이라는 통찰 위에 선다. 결국 유교도, 불교도, 그리고 오늘날의 물리학·수학·자연과학·경제학·예술도, 모두 조화로운 우주 질서를 탐색하는 하나의 믿음 체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권력은 언제나 사상보다 앞서 타락하기 쉽다. 힘을 쥔 소수의 지도층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유교를 ‘행동 규범’이 아니라 ‘지배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유교 사상이 아니라 유교 문화가 변질되었다. 배려 없는 이기심은 자연스럽게 ‘남성 우월주의’라는 생각을 낳았고, 그 정신은 일상 언어에까지 스며들었다.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씹’이 욕설의 핵심 어휘로 자리 잡고, 심지어 성관계 자체를 그렇게 부르는 관습도 생겨났다. 고려나 삼국 시대 역시 전쟁과 침략이 빈번했다. 남성 인구가 줄고, 사회가 남성을 더 귀하게 여긴 상황이 반복되었다면, 그 역시 남성 우월주의를 강화했을 것이다. 다만 전쟁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보다, 권력을 가진 소수가 보여 준 이기성과 무책임이 그러한 문화를 더욱 공고히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타락한 리더의 마음이 타락한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가 다시 사회 전체를 병들게 했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 불교는 본래의 불교를, 유교는 본래의 유교를, 기독교는 예수의 가르침을 새롭게 바라보려 한다. 그 과정에서 ‘남자 > 여자’라는 비대칭은 서서히 ‘남자 = 여자’라는 균형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흥미롭게도 욕설의 변화에서도 이런 흐름을 읽을 수 있다. 과거 여성 비하의 흔적이 강했던 ‘씹’의 사용 빈도는 줄고, 남성을 겨냥한 ‘좃’이 더 자주 쓰이기 시작했다. ‘쓰남’보다 ‘좃까’, ‘좃 같네’, ‘좃문가’ 같은 표현이 일상적 제스처와 함께 더 널리 퍼진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욕설 자체는 줄어들어야 한다. 패미니즘(feminism) 역시 ‘씹’보다 ‘좃’을 선호하는 방식으로 드러나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언어의 변화 속에서, 오래된 불균형이 균형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읽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욕설의 전세계적 공통점

“번식하지 마라, 가족도 없게 하라, 그리고 죽어라.”

세상 곳곳의 언어를 들여다보면, 욕설이 서로 닮아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그 밑바닥에 흐르는 정서는 놀라울 만큼 비슷하다. 첫째, 욕설에는 대개 **이기심**이 깔려 있다. “나는 상처받았으니, 너도 상처받아야 한다.” 상대가 느낄 고통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분노를 즉각적으로 던져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말의 형태로 터져 나온다. 둘째, 욕설에는 상대를 **집단 바깥으로 밀어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너는 여기 속하지 않는다.” 모욕은 단순한 비난을 넘어, 상대와 그 주변을 사회적 공간 밖으로 내쫓는 기능을 하곤 한다. 셋째, 여러 문화권의 욕설 속에는 의외로 오래된 사상 구조, 특히 극단적 이원론에서 비롯된 **여성 비하**의 흔적이 끈질기게 남아 있다.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조차 조롱의 대상이 되는 역설이 그 안에 있다.

이 공통점이 향하는 지점은 항상 비슷하다. 욕설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정면으로 건드린다. **성교(sex), 남성과 여성, 가족, 건강, 생명**. 이 단어들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붙잡고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존재하는 상황”을 떠올리면 자연스레 안도감을 느끼고, “사라진 상황”을 상상하면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 욕설은 바로 그 지점, 가장 아프고 불안한 상상력을 찌른다. 상대의 자존감과 관계망, 생존의 감각까지 한꺼번에 흔들면서, 최대한 큰 상처를 남기려 한다.

흥미로운 점은, 욕설이 반복해서 호출하는 성적 표현들이다. 성관계를 하고 싶다면 스스로의 삶 안에서 건강하게 추구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욕설 속에서 성은 쾌락의 언어가 아니라, 굴욕의 언어로 변형된다. 사랑과 친밀함을 상징해야 할 단어가, 다른 사람을 낮추는 수단으로 전도되는 것이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종종 그 언어를 빌려 상대를 찌르려 한

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욕설이 품고 있는 “좋은 것”은 직접 경험할 때 더 좋고, “무서운 것”은 간접적으로 경험할 때 덜 해롭다.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누군가를 향해 상처를 남길 말 한마디를 던지는 대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거나, 영화와 책 속에서 다른 이의 운명을 따라가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편이 훨씬 인간적일 것이다.

욕설은 종종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오늘 내가 내뱉은 말은, 언젠가 다른 사람의 입에서 다시 내게로 되돌아온다. 사회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천천히 닮아 가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향해 던진 배척과 모욕은, 결국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공기를 조금씩 탁하게 만든다. 그 공기 속에서 살아가는 이상, 나 역시 그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욕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단순히 “나의 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갈 공간”까지 함께 떠올릴 필요가 있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말은 사건이 언제나 정의롭게 마무리된다는 뜻만이 아닐지도 모른다. 말 역시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온다. 우리가 어떤 언어로 서로를 불러왔는지가, 결국 우리가 어떤 사회 속에서 살게 될지를 조용히 결정할 것이다.

욕설의 기능

욕설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등장한다. 먼저 그것은 경계를 긋는다. 누가 우리이고, 누가 아닌지를 표시한다. 술자리에서 서로에게 거칠게 말을 던지며 웃는 사람들과, 같은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버리는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 말의 거칠음이 친밀함의 신호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배제의 신호가 되기도 한다. 욕설은 공동체의 내부를 결속시키는 암호처럼 쓰이면서, 외부인을 향해서는 “여기까지”라는 표지판이 된다. 그래서 욕을 들었을 때 느끼는 상처에는, 단순한 모욕감만이 아니라 “나는 그들의 내부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고립감이 섞여 있다.

경계를 세운 언어는 곧 통제의 언어가 되기 쉽다. 누군가를 향한 욕설은 상대를 한순간에 특정한 위치로 밀어 넣는다.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말, 강자가 약자에게 던지는 말일 때 그 효과는 더 커진다. 욕은 상대의 목소리를 작게 만들고, 스스로를 방어하게 만들며, 어떤 경우에는 침묵을 강요한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온라인 공간에서까지 욕설은 질서를 유지하는 장치처럼 작동한다. 규칙을 설명하는 대신, 인격을 낮춤으로써 행동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욕이 개인의 감정 표현을 넘어, 사회적 권력의 도구가 되는 지점이다.

그러나 욕설은 동시에, 억눌린 감정을 밖으로 밀어내는 숨구멍이기도 하다. 설명하고 설득하는 대신, 단 한 단어로 분노와 좌절, 당혹감을 방출한다. 욕은 논리를 건너뛰고, 감정의 온도를 즉각적으로 드러낸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폭력의 대체물이 되기도 한다. 차라리 말로 쏟아내고, 행동은 멈춘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더 거친 감정을 부추기는 기폭제가 되기도 한다. 욕설이 치유와 파괴의 갈림길에 동시에 서 있는 이유다. 같은 말인데도 누군가에게는 숨을 돌리게 하는 탈출구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폭발의 도화선이 된다.

마지막으로 욕설은 권위를 시험한다. 금기로 여겨져 온 것들, 신성하다고 여겨진 것들을 일부러 건드린다. 종교, 부모, 성, 죽음 같은 주제들이 욕설에서 반복적으로 호출되는 이유는, 그만큼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욕을 통해 사람들은 사회가 정해 놓은 선을 살짝 넘어보고, 그 선이 정말로 단단한지 시험한다. 때로 그것은 유머의 형태로, 때로는 노골적인 모욕으로 나타난다. 금기를 깨뜨리는 순간, 긴장이 느슨해지기도 하고, 정반대로 더 크게 조여지기도 한다. 욕설은 그 경계에서 끊임없이 흔들린다.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금지되는지, 사회의 규범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욕은 그래서 단순한 “나쁜 말”이 아니다. 소속과 배제, 통제와 저항, 방출과 폭발, 금기와 실험이 한데 얹힌 복잡한 언어적 행위다. 우리는 욕을 통해 서로의 거리를 재고, 힘의 방향을 확인하며, 감정의 깊이를 들여다보고, 사회가 숨겨두려는 금기의 자리를 엿본다. 욕설을 없앨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왜 그것이 생겨나고 반복되는지 이해하려는 시도는 — 언어와 인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를 이해하려는 시도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욕설 분류와 의미

남녀의 생식기(genitals)와 성교(intercourse)관련

- 놈, 년, 엇 - 남자 (양), 여자 (음), 성기
- 좇 - 자지 (cock, dick). 남성의 성기 (penis)
 - 좇대거리 (귀두), 좇물 (정액 cum), 좇밥 (성기 안쪽에 낀 이물질), 좇심 (발기능력)
 - 불알, 부랄 - 남성의 고환 ball.
 - 고자, 좇병신 - 고환이 없는 남성
 - 좇뽕이 치다 - 성기로 팽이를 돌리는 것 만큼 힘든 일을 하다
 - 변태 pervert - 비정상적 성행위를 추구하는 사람
- 씹 - 보지 (pussy). 여성의 성기 (vagina) 또는 성관계 sex
 - 좇집 (여성의 성기 cunt), 암캐 bitch (여성)
 - 씹새끼, 씹자식, 씨방새 son of a bitch - 여성에서 나온 자식
 - 갈보, 걸레, 냄비, 잡년 slut - 남자를 갈아치우는 보지, 여러 남성과 성관계를 많이 하는 여성
 - 화냥년, whore - 성행위를 서비스로 파는 여성, 매춘부 Prostitute, 창녀 hooker
 - 씨팔, 씨발, 시발, 씨댕, fucking - 씹질을 할 - 성행위를 할, 성행위와 같은 기분을 느낄
 - 씨방년 - 성관계를 할 여성.
 - 씹탱구리 (여성의 성기가 부풀어 오른 모습), 씹쭈구리 (성행위 후에 찌그러진 여성의 성기 모습)
 - 좇빨러, 보빨러 - 성기를 빠는 사람. Oral sex를 하는 사람

이기심과 배척 관련

- 엇 먹어라, Fuck you - 내 성기나 먹어라 - 나는 좋지만 남은 싫은 걸 하도록 강요
- 개 돼지 - '야생적 동물은 인간보다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비하할 때 사용.
- 개 새끼, 개 자식 - 강아지의 자식. 나와 함께 사는 가족 중에 자식과 개는 나보다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지위가 낮은 사람 보다 더 낮은 사람으로 지칭할 때 사용.
- 개 쓰레기, 똥 bullshit - 사회에서 버려지고 배척되어야 할 것
- 병신, 등신, 빠꾸, 애자, 저능아 asshole - 장애인 - 몸이 아픈 사람을 비하
- 호모, 게이 - (남성 male인지 여성 female인지에 대해) 객관적, 신체적 성의 구분 (sex)과 주관적, 정신적 성의 구분 (성정체성 gender)이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말.
- 미친 crazy - 간질병에 걸린 사람처럼 지랄 발작 - 비정상적인 상태를 비하
 - 미친년, 미친놈
- 고자 - 번식, 생식이 불가능한 남성을 비하.
- 염병 - 장티푸스 - 병에 걸린 사람을 비하
- 개좇 만한게 - 강아지의 성기만한게 - 남성의 작은 성기를 비하
- 아가리, 주둥아리 - 입 - 상대방의 입을 비하
- 꼬봉, 꼬봉, 똥마니, 뽕셔틀 - 스스로 상대방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오야붕, 꼰대, 툴딱)이 상대방을 비하할 때 사용. 갑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용하는 단어.
- 짱개, 짱꼴라 (중국인), 쪽바리, 쪽발이 (일본인), 코쟁이 (서양인) - 배척하려는 다른 민족.
- 호로자식 - 혼외 자식 또는 오랑캐 (흉노)의 자식
- 종간나 새끼 - 종 여자의 자식
- 경을 칠, 육실할 - 자자형 (조선시대 형벌 중에 하나), 육시 (능지처참이나 거열)를 가할 만한
- 개 망나니 - 개 도축업자
- 똥개 - 더러운 똥을 먹으려는 강아지처럼, 추잡한 행동을 하려는 사람.

최악의 욕설 (금기의 위계)

가장 심한 욕설은 대개 **가족**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니미 씨발(니 어미 성교할)” 혹은 영어의 “mother fucker” 같은 표현이 그렇다.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두 가지 의미가 겹친다.

하나는, 서양 신화 속 오이디푸스 이야기처럼 **어머니와의 성적 관계**를 강요하는 끔찍한 저주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알지 못한 채 어머니와 결혼한 뒤, 진실을 깨닫고는 고통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눈을 멀게 하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다. 이런 상상은 단순히 외설적인 충격을 넘어, 인간이 가장 깊이 두려워하는 심리적 금기를 건드린다.

또 다른 해석은, “니 어미는 성교할 존재”라는 식으로 **상대의 어머니를 비하**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엄창(어머니를 창녀로 낙인찍는 표현)’과 같은 구조다. 인간에게 가장 존중받아야 할 관계를 모욕함으로써, 대상의 자존감과 가문 전체를 한꺼번에 끌어내리려는 방식이다.

이 계열의 표현들은 “니미 씹물에 밥 말아 먹을 놈” 같은 말과 함께, 욕설의 위계에서 거의 최상위에 놓인다. 성, 혈연, 부모라는 — 인간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믿는 핵심 영역을 동시에 훼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욕설은 단어 그 자체보다, **금기를 짓밟는 상상**이 만들어내는 폭력성 때문에 더 파괴적으로 느껴진다.

욕 같지만 욕이 아닐 수도 있는 속어

욕(辱, cuss)은, 비어(卑語, vulgarism) - 상대방을 비하하는 (나와 비교해서 하대하는) 언어 -로 정의된다.

반면, 속어(俗語, slang)는, 대다수가 사용하는 언어의 전통적 형식에 벗어난 언어로 정의된다.

- 존나 - 좇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굉장한
- 좇갈다 - 남성의 성기 같다 → 열받네, 운없네, 킹받네 < 제기랄
- 쌍 = 운이 없는. 품위가 없는. 그러나 쌍놈, 쌍년은 나보다 지위가 낮은 상놈을 뜻하는 비하.
- 바보, 멍청이, 닭/새/돌/빡 + ~대가리 - 돌머리를 가진 사람 - 생각이 없어 보이는 사람.
- 빠구리하자, 씹 좋아, 씹할 기분 = 성관계하자. 성관계 좋아. 성관계하는 기분.
- 옛 쥐, fuck me - 성행위 해 주세요.
- 쫄보, 겁쟁이, 간이 작은 사람 coward - 겁이 많아 보이는 사람. 조심성이 많은 사람.
- 소인배, 찌질이, 찌따 - 자기중심적 사고로 타인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반대는 대인배.
- 싸가지가 없다, 싹수가 노랑다 - 식물의 싹(싸)이라는 새끼(가지)가 노랑색인 것처럼 앞으로 희망이 없어 보인다. 일반적인 예의나 배려가 없어보이니, 앞으로 사회에서 적응하기 힘들어 보인다.
- 후빨러 sucking asshole, lick or kiss my ass, brown noser - 권력이 있는 자에 대한 맹목적 추종자. 타락한 환관과 같이, 기존 권력자를 향한 지나친 아부와 충성을 하는 사람.
- 우라질, 오라질, 떼갈 놈 - 오라줄로 묶일 만한, 수갑을 찰 만한 남자
- 개소리 - 아무말 대잔치
- 개 만도, 금수만도 못한 사람 - 보통의 강아지와 야생 짐승들은 말은 못하지만, 솔직하고, 배려해 준 사람의 등에 칼을 꽂는 교활한 행동 (양의 털을 쓴 놈, 늑대같은 놈, 여우같은 년)을 하지 않는다.

조선시대 씹선비들

역사는 늘 새로운 얼굴을 하고 반복된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 그중에서도 성욕(sexual drive)은 시대와 문명이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성과 관련된 일화들을 들여다보면, 놀랍도록 익숙한 장면이 겹쳐진다. 시대만 다를 뿐, 오늘날에도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이야기들이다.

흥미로운 지점은 **도덕을 앞세운 사회가 실제로는 더 많은 위선을 낳았다**는 역설이다. 조선은 유교 윤리를 기둥으로 삼은 사회였고, 백성에게 절제와 검소를 가르쳤다. 그러나 권력과 지위를 쥔 일부 양반들은 겉으로는 예(禮)와 도덕을 설파하면서도, 사적인 영역에서는 그 규범을 쉽게 무너뜨렸다.

재력, 권력, 명성 — 이런 비교우위를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거나 숨길 수 있다고 믿기 쉽다. 그 결과,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보다 개인의 리비도(libido)가 우선되는 선택을 하게 된다. 기록을 보면, 첩을 들이거나 하인을 상대로 관계를 강요하고, 심지어 종교와 도덕을 동원해 이를 합리화하려 했던 사례도 적지 않다. 물론 모든 상류층이 동일하게 타락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권력이 집중된 사회일수록, **책임보다 특권이 먼저 작동하는 구조**가만 들어지고, 그 구조가 사람을 더 쉽게 타락하게 만든다는 점은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궁극적 문제는 욕망 자체가 아니라, 욕망을 제어해야 할 윤리와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권력의 오만**일 것이다.

오성과 한음의 생식기 관련 용어에 대한 질문

- 주의: 이 이야기는 유사 역사학(pseudo-history)의 영역에 가까운 설화, 풍자담에 가깝다. 조선시대의 오성 이항복과 한음 이덕형에게 실제로 어떤 스승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퇴계 이황이었는지, 율곡 이이였는지조차 확정하기 어렵다.

오성은 스승님께 질문을 했다.

"스승님, 남녀의 어린 시절엔 여자의 소문(小門)을 '보지'라 하고, 남자의 양경(陽莖)은 '자지'라 하고, 어른이 된 후엔 왜 그 것을 '쫓, 씹'이라 합니까?"

다른 유생들은 당황스러워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스승님은 크게 웃음을 터트리며 이렇게 대답했다.

남자의 "자지"는 "앉아야 감추어진다"는 뜻의 "좌장지(坐藏之)" '좌(座)' 감출 '장(藏)' 갈 '지(之)' 라는 말이 변해서 된 이름이다. 또한 그것은 바로 "아이 즉 자식을 낳는 나무요, 또 가지를 치는 것"이라 하여 "아들 자"자와 "가지 枝"자를 써서 "**자지(子枝)**"라 이르고,

여자의 "보지"는 "걸어다녀야 감추어진다"는 뜻의 "보장지(步藏之)" '보(步)' 감출 '장(藏)' 갈 '지(之)' 라는 말이 변해서 된 이름이다. 또한 그것은 자식을 담아 기르는 보배스런 못이라고 하여 "보배 보(寶)"자와 "못 지(池)"자를 써서 "**보지(寶池)**"라고도 한단다.

또한 성인이 되어서는,

남자는 양기를 지녀 그것이 항상 말라있어야 되기에 "마를 조(燥)"자를 쓴 것이 발음 편의상 "**쫓**"이라 부르게 된 것이고,

여자는 음기를 지녀 그것 이 항상 젖어 있어야 하기에 "습할 습(濕)"자를 쓴 것이 발음 편의상 "**씹**"이 된 것이다.

김삿갓의 시 -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

- 김삿갓 (본명: 김병연. 1807-1863).
- 힌트: 위 (=가슴), 아래 (=성기)

시아비가 위를 빨고, 며느리가 아래를 빠니, 위와 아래는 같지 않으나, 그 맛은 아마 같았으리라.

시아비가 그 둘을 빨고, 며느리가 그 하나를 빠니, 하나와 둘은 같지 않으나, 그 맛은 아마 같았으리라.

시아비가 그 단것을 빨고, 며느리가 그 신것을 빠니, 달고 신것은 같지 않으나, 그 맛은 아마 같았으리라.

신윤복, 김홍도

조선 후기 18세기 정조시절 최고의 풍속 화가라고 한다면 김홍도와 신윤복을 꼽을 것이다.

김홍도(金弘道, 1745~1806)는 <운우도첩雲雨圖帖>을,

신윤복(申潤福, 1758 ~ 1814)은 <건곤일회첩乾坤一會帖>이라는

여러 점의 춘화 (춘정화春情書)를 그렸다.

운우雲雨는 비와 구름이 엉키듯 남녀의 성행위를 비유한 것이고,

건곤乾坤은 하늘과 땅, 즉 남녀의 만남을 의미한다.

우리는 춘화라는 풍속화를 통해 조선 후기의 성 풍속과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거세되지 않은 내시

조선 초기에는 (왕족이나 선비처럼 재력과 권력을 가지진 않았지만),

거세가 되지 않아 생식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세되지 않은 내시'들이 있었다.

<태종실록>에 보면, 조선 2대왕 정종 (이방과) 시절에, 정사징이라는 내시가 있었다고 한다.

그는 정종의 아이를 낳았던 궁녀 기매와 간통하였고, 정종의 친동생인 이방간의 첩과도 간통하였다.

그의 간통은 적발되었고, 그는 참수되었다.

조선시대 성인용품

조선 사회는 겉으로는 엄격한 유교 윤리를 내세웠지만, 인간의 욕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궁녀와 과부처럼, 결혼 제도나 신분 질서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맺기 어려웠던 여성들은, 공개적인 연애를 감행하지 않는 한 자연스러운 성욕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여성 자위 도구인 **각죃**(오늘날의 딜도, dildo)을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소뿔을 재료로 만든 이 물건은 한양 종각 근처의 잡화점, 이른바 동상전에서 은밀히 거래되었다고 한다.

이 짧은 에피소드는, 조선이 아무리 도덕과 규범을 강조한 사회였다고 해도, 사람들의 몸과 욕망까지 통제할 수는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겉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삶의 내부에서는 늘 다른 방식의 현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녹수와 10대왕 연산군 (이융. 재위 12년. 18-30세)

연산군은 9대왕 성종과 그의 왕비인 윤씨 사이에 태어났다.

성종은 여색을 좋아해 여러 후궁들이 있었기에 왕비인 윤씨는 이를 질투하였다. 그러던 중 어느날 윤씨는 성종과 실랑이를 하던 와중에 성종의 얼굴에 상처를 내게 되었는데 이것을 빌미로 (유교사상에 따른 칠거지악) 폐서인 되고 2년뒤 사약을 받아 죽게 된다. 성종은 이 사건을 철저한 비밀에 붙이고자 하였는데, 연산군은 재위 10년에 이 사건을 알게 되고 이때부터 연산군의 다음과 같은 행각이 시작된다.

- 존속살인: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이 아버지의 다른 후궁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 후궁들의 자식들, 즉 자신의 이복형제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어머니를 때려 죽게 하도록 시켰다.
- 살인: 갑자사화. 자신의 편인 세력만 남겨놓고 모두 숙청했다.
- 흥청망청: 전국의 미인들을 강제 징벌하여 궁궐로 불러들였는데, 그중에 노래를 잘하는 여성들을 '흥청'이라 칭하고, 그들과 방탕하게 놀았다. 백성들은 이러한 행각을 보고 흥청은 망청이라 하였다. 백성들에 의해 돌로 맞아 죽은 '**장녹수**'는 최고의 흥청으로 유명하다.
- 부녀자강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의 아내인지 비밀히 알아보게 하여 외워두었다가 나중에 강제로 간음하였다." (연산군일기)
- 근친상간: 누이들과 간음하고, 50이 넘는 큰어머니도 강간하여 임신시켰다.

연산군은 중종반정 (신하들이 왕을 몰아내고 중종을 옹립함)으로 왕위에서 물러나, 강화도로 유배되어 2달 후 괴질로 사망한다.

사방지

사방지(舍方知)는 신비롭고 기이한 존재로 남아 있다. 자웅동체에 가까운 기형적 생식기를 가졌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 독특한 신체적 조건이 오히려 사람들의 호기심과 욕망을 자극했다고 전해진다. 조선 세조 때 여러 과부, 여승들과 관계를 맺으며 금기를 넘나들었고, 결국 왕에게 발각되어 외방의 노비로 내쳐진다.

당대 사회가 겉으로는 성적 규범을 엄격히 강조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억눌린 욕망과 호기심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방지의 일화는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어우동

80-90년대 에로물의 제목이기도 한 어우동(於宇同, 1440-1480)은 조선 성종 시기를 뒤흔든 스캔들의 중심 인물이었다. 그녀는 귀족 출신 여성이었음에도, 자유로운 연애와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고위 관료들과 연루되었다. 결국 재판과 처벌로 이어졌고, 조선의 엄격한 성윤리가 얼마나 가혹하게 작동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되었다.

어우동의 삶은 한 개인이 자신의 욕망과 사회적 규범 사이에서 어떻게 갈등하고, 또 어떻게 단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인간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

황진이

황진이(黃眞伊, 1506-1567)는 조선 중종 때의 기생이자 뛰어난 시인, 예술가였다. “청산리 벽계수야”로 시작하는 시조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녀는 ‘유혹하는 기생’을 넘어 지성과 감성을 동시에 갖춘 문화적 아이콘이었다. ‘벽계수’라 불리던 왕족 남성과의 관계는, 육체적 욕망과 정신적 교감이 겹쳐진 복합적인 사랑으로 전해진다. 황진이는 사랑과 이별, 삶의 허무함을 노래하며, 기생이라는 신분의 한계를 넘어 시대의 감성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다.

선조: 정력왕 압군

많은 사람들은 선조를 압군으로 여긴다. 뛰어난 인재들을 등용하기도 했지만, 임진왜란이 터지자 백성들의 고통을 뒤로 한 채 먼저 피난을 떠났다는 기록, 이순신을 질투해 백의종군을 명한 일, 민생 문제 앞에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그는 12명의 부인과 궁녀를 통해 34명의 자녀를 두었다. 정치적 동맹을 강화하고 왕권을 지탱하기 위한 계산이었을 수도 있고, 단순히 성적 욕망이 강했던 인간적 면모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선조의 삶은 권력, 불안, 욕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던 한 인간의 초상을 보여준다.

영조: 51세의 나이차 극복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이름: 동이)는 신분이 낮은 궁녀, 그중에서도 무수리였다. 그러나 숙종의 총애와 정치적 역학의 도움으로 후궁의 반열에 올랐고, 그 아들 영조는 조선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머문 인물이 된다. 52년 간 나라를 다스렸고, 83세까지 생을 이어가며 10명의 부인과 궁녀를 통해 20명이 넘는 자녀를 두었다.

그는 철저한 관리와 절제의 상징처럼 이야기되기도 하지만, 다른 장면에선 냉혹한 권력자의 얼굴을 드러낸다. 42세에 얻은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그 이후에도 자신의 삶과 건강을 성실히 챙겼다. 혼인과 관련된 일화도 유명하다.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기 3년 전, 66세의 영조는 15세의 정순왕후 김씨를 새 왕비로 맞아들인다. 무려 51세의 나이 차였다. 정순왕후는 손자인 정조보다 겨우 7살 많았고, 심지어 자신의 할아버지보다도 5살 위인 남자와 혼인을 해야 했다.

숙종과 장희빈(장옥정), 숙빈 최씨(동이·무수리 출신)

조선의 왕 숙종은 정치적으로는 탁월한 균형 감각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지만, 동시에 그의 사생활은 파란이 많았다. 그 중심에는 희빈 장씨(장옥정)와 숙빈 최씨가 있다.

장옥정은 뛰어난 미모와 재능, 그리고 강한 야망을 지닌 인물로 여겨진다. 그녀는 후궁에서 왕비의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정치적 개입과 당파의 갈등 속에서 결국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한다. 장옥정의 삶은 사랑이 권력과 결탁할 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반면 숙빈 최씨는 출신이 낮은 궁녀, 그중에서도 무수리였다. 그러나 소박함과 신중한 성품으로 숙종의 신뢰를 얻었고, 결국 영조(King Yeongjo, 영조)의 어머니가 된다. 같은 후궁이었지만, 두 여성의 삶은 전혀 다른 궤적을 그렸다. 한 사람은 욕망과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스러졌고, 다른 한 사람은 조용한 인내로 왕실의 중요한 위치에 올라섰다.

사람들은 종종 이 이야기를 사랑의 이야기(2013 드라마 '장옥정, 사랑에 살다')로 기억하지만, 사실 그것은 권력의 언어로 쓰여진 드라마였다. 그 속에서 여성들은 사랑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정치의 도구이기도 했다.



폴리아모리, 열린 관계, 자유로운 성과 사랑에 대한 안내서



재닛 하디, 도씨 이스턴 (2020), 윤리적 잡년

‘윤리적 잡년’은 미국 성인들의 성윤리 sexual ethics에 대해 매우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윤리적 잡년 (Ethical Slut)은, 섹슈얼리티와 성애를 열린 마음으로 환대하는 사람이다. 나의 몸과 감정은 나의 것이지만, 상대방의 감정도 존중되어야 하기에,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섹스는 비윤리적이다. 배우자의 동의 없는 불륜도 비윤리적인 것이라며, 모두의 이익, 행복, 즐거움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기혼과 미혼에 상관없이, 사랑이라는 관계에 있어 성관계와 성적만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즐거움은 그 자체로 온전하고 가치있는 목표인데, 성관계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성관계는 육체적 긴장을 풀어주고 생리통을 완화한다.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전립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관계도 탄탄해진다.

저자의 도발적 질문들. 진정한 사랑은, 장기간의 모노가미 관계+섹스? 서약한 관계에서만 사랑? 질투는 불가피하며 극복할 수 없다? 외부 관계가 primary와의 친밀감을 낮춘다? 많은 경우 외부적인 관계가 primary 관계와의 관련된 압박을 줄여줘서 primary partner와의 친밀감이 높아지기도 한다. 질투심과 소유욕 없는 사랑을 상상할 수 있는가? 해맑은 사랑

은 기대가 없는 사랑이다. 저자는 섹스 중독을 치유하는 방법이 반드시 모노가미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이 모노가미적인 방법을 원한다면 몰라도. polyamory와 당신이 사는 도시 이름을 함께 검색해보라. 보수적인 지역이라고 짐작했던 곳에서도 많다. 옴니섹슈얼 카페. 그곳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단정할 수 없었으므로, 서로를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용어집

Kink. 주류 바깥에 있는 모든 형태의 성. Fetish play, Leather, BDSM. Bondage, Discipline, Sadism (inflicting pain), Masochism (receiving pain),

Sex Addiction. 섹스 중독. 한 사람의 생활이 관계, 직장, 또는 삶의 다른 측면에서 건강하게 작동할 수 없을 정도로 강박적인 성행위를 일컫는 말. 섹스로 다른 요소들을 대체하는 것. 종종 행복한 잡념을 병리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통제할 수 있고 해야하는 것과, 통제할수 없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인식한다.

Sex. 직접성교 Intercourse. Fuck. 간접성교 Outercourse

Faithful 충실. Fidelity 정절. 한 사람과만 성관계를 하는 것? “지속적인 충실함과 지지로 입증된 것”

Polyamory. Nonmonogamy. 일부일처제의 여집합. 폴리아모리가 생소한 사람들은 경계를 정의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들은 보통 자신들의 실제 욕망보다는 상대방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 - 안전하지 않고 두려움을 자아내는 활동-에 더 집중한다. 이런 종류의 한계선 설정은 많은 사람들을 방향 감각이 상실된 잡념 생활의 세계로 이끈다.

Poly-fidelity. 2명이상, 2쌍 이상인 커플의 배타적 성애 그룹. Polyamory의 하위 그룹.

Monogamy 일부일처제. 장점은? 모든 에너지를 한사람에게 몰방. 중요한 책임 (아기, 육아, 직장)을 위해 여유를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다. 성적 흥미를 파트너의 욕망 충족 또는 헌신을 위해 개인의 욕망을 기꺼이 희생. 유지의 단순함. 불만은? 모노가미 그 자체가 아니라 모노가미만이 당신의 선택 가능한 유일한 것이라고 믿는 일이다.

Monogamish. 커플인데 각각 섹파를 두는 것. 그런데 서로가 동의하고 실행함. 커플인 두사람 간 합의다. 그들의 결속이 그 어떤 외부 관계보다 우선하지만, 간헐적인 짧은 만남은 용인된다.

Centrist. 중심주의자. “그래야만 하는” 방식에 대한 암묵적인 기대로 주의를 환기시켜 주류와 비주류를 나누려는 사람. 이성애중심주의자. 남성중심주의자. 부부중심주의자.

Open relationship.

Openheartedness. 오픈마인드. 편견과 오만에서 벗어나 거울뉴런을 이용하여 공감, 연민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

Mono-normativity. 일부일처제여야만 한다는 생각.

Hetero-normativity. 이성애 규범성. 이성애를 제외한 나머지 성적 선택은 비정상이므로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고 문화적으로 정의하는 믿음.

Slut-Shaming. 자기 생각과 다르거나 과도한 방식의 섹스를 한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천박하게 취급하고 모욕하거나 해를 가하는 행위.

Gender. 섹스는 다리 사이에, 젠더는 머릿속에. binary gender의 양극단 사이 어디쯤에 위치하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genderqueer, gender-fluid, gender-bender라고 불린다.

Gender-neutral 적인 단어, 인간. 영어에서는 They.

Sexual Orientation 성적 지향.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무성애자를 가리킨다.

Intersex. 둘 이상의 성별 신체적 특징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

Straight, Bisexual,

Trans 트랜스젠더. 자신의 젠더를 염색체나 생식기가 나타내는 젠더와 다르게 인식하는 사람. Transfolk은 호르몬 복용, transitioning 수술을 선택할수도 안할수도 있다.

Queer (동성애자, 게이, 레즈비언)

Asexual. 무성애자. 성적인 끌림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

Pansexual. 범성애자. 이성, 동성등 모든 성적지향을 포괄.

New Relationship Energy. Limerence. 관계를 새로 시작하는 단계에서 유발될 수 있는 격렬한 감정.

Sex-positive. 성 긍정주의. 섹스는 삶의 건강한 동력이라는 믿음.

Sex-negative. 성 부정주의. 섹서는 위험하고, 성욕은 나쁘며, 통제할수 없다는 신조. 고상함, 경건함, 세련됨의 반대말은 섹스 좋아함.

Friend with Benefits. 섹파. 펍바디.

Fluid Bonding. 체액 결합. 서약한끼리만 안전장치 없이 섹스하고, 서약 안한 파트너와는 콘돔등의 차단법을 씬.

Compersion. 연인이 다른 누군가와 즐기는 모습을 볼 때 발생하는 에로틱한 감정. 많은 사람에게 컴퍼션의 기쁨은 질투라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